



도덕적 타락과 자의식 성장의 이중적 서사

- 「감자」에 나타난 복녀의 재조명

Double Narration of the Fall of Morality and the Growth of Self-Awareness

저자 趙潔, 苑英奕
(Authors) Zhao Jie, Yuan Yingyi

출처 [동아문화 52](#), 2014.11, 51-64 (14 pages)
(Source) [The Journal of S.N.U. Institute for Asian Studies 52](#), 2014.11,
51-64 (14 pages)

발행처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ublisher) Institute for Asian Studies Colleges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39739>

APA Style 趙潔, 苑英奕 (2014). 도덕적 타락과 자의식 성장의 이중적 서사. 동
아문화, 52, 51-64.

이용정보 서울대학교
(Accessed) 147.46.182.23
2015/12/30 10:39 (K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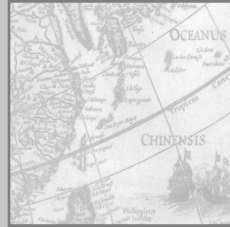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東 · 亞 · 文 · 化 · 52

도덕적 타락과 자의식 성장의 이중적 서사: 「감자」에 나타난 복녀의 재조명

赵洁, 苑英奕

1. 서언
2. 도덕을 지키며, 가부장제에 따르는 숙명적인 복녀
3. 도덕관에 의심을 품고, 자의식을 가지게 된 복녀
4.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자기욕망을 채우는 복녀
5. 결어

도덕적 타락과 자의식 성장의 이중적 서사: 「감자」에 나타난 복녀의 재조명

赵洁*, 苑英奕**

1. 서언

「감자」는 1925년 창작된 단편 소설로 김동인의 대표적인 자연주의 경향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의 연구를 개괄하면 대체로 세 가지 경향을 보이는데 많은 학자들은 환경 속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수동적으로 변해가는가,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인한 한 여인의 파멸과 타락, 비극 등에 대한 분석들이다.¹⁾ 예컨대 ‘주인공 복녀를 통해 모순된 사회 속에서 자기를 상실해 가는 제시한 작품이다.’(윤홍노, 1980)라는 관점이나 ‘도덕적인 환경에서 자란 복녀를 비도덕적인 환경으로 던져넣음으

* 大连外国语大学亚非语言专业, 전공방향: 한국현대소설

** 大连外国语大学比较文化创新团队, 전공방향: 한국현대대문학

1) 윤홍노, 『한국 근대 소설 연구』, 일조각, 1980, p.293.

김주란, 「김동인의 초기 단편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2011, p.46.

용석인, 「韓·日 자연주의 소설 비교 연구: 자연주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3, p.30.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p.289.

로써 환경결정론에 의해 그녀가 지니고 있던 도덕관을 어떻게 공허화 시키는가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김주란, 2011)라는 관점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관점들은 자연주의 환경론의 시각에서 「감자」를 분석하고 복녀의 이미지를 규정한 것으로, 이른바 사람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절로 변화해간다는 논리이다.

이와 달리 역사적, 사회적 관념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이 작품이 사회악을 고발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는 관점도 있다.²⁾ 예컨대 이주형에 따르면, 「감자」는 ‘주인공 부부가 어떻게 타락하여 어떠한 사회악을 형상하는가를 보임으로써 사회악의 현실적 영상을 고발한 작품이다.’(이주형, 1982)라는 자각은 인간의 타락과정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최악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 소수 학자들은 상기한 두 가지 의견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을 견지한다. ‘복녀의 가난과 불행, 죽음을 복녀 자신의 터무니없는 질투 때문이었거나 그의 남편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밝혀내는 데는 미흡했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예외없이 복녀의 타락을 제시하였지만 그녀가 타락해가는 과정에서 자의식의 각성과 성장과정이 간과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감자」를 복녀의 도덕적 타락과 자의식의 이중적 서사로 보고, 복녀가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자의식을 깨닫게 되어 능동적인 인물로 성장했다는 서사적 변화를 밝혀보려고 한다. 아울러 그 동안 작품 속에서 부정

2) 이주형, 「『소낙비』와 『감자』의 거리」, 국어국문학회 편,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2, p.111.

이주형, 「일제강점시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수난의 형상화 양상」, 『국어교육연구』 제29집, 1997, p.4.

적으로 묘사되고 비판받았던 복녀의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작가 김동인의 긍정적 여성관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복녀로 부터 1920년대 여성들의 자의식이 이미 싹이 트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자의식은 인간 정신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언어와 욕망을 통한 인간 이해의 방식이라는 점으로 주목할 만하다. 헤겔에 있어서, 모든 의식 형태는 대상의식이다. 아무런 사유의 매개도 거치지 않고, 단지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만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대상을 의식하는 것이 의식의 최초 형태가 되는 것이다. 자의식이란 타자의 독립성을 부정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이러한 자의식의 최초의 형태가 욕구이다. 헤겔은 욕구를 “자의식의 자기 자신의 통일”이라 하면서 그것은 외적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격을 지닌 동시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욕구란 우선은 “나”의 욕구이다. “인간이 배가 고파서 먹고자 할 때와 같이 욕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자의식은 욕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³⁾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욕구의 본질은 욕구하는 대상의 지양을 통해서만 만족한다고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욕구가 충족되면 더 이상 욕구가 아니기 때문에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욕구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한다.

여성중심적 자의식은 타자지향적 역할을 강요하는 규범적 여성상에서 벗어나, 여성중심적 관점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자아에 대한 인식을 지냄으로써 자아를 긍정하고, 자신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창조적인 획득 등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여성의 자기의식’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기득권층으로 군

3) 김대식, 「헤겔에 있어서의 자의식의 자유」,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1983, p.6-7.

림하는 남성들에 의해 강요된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여성 스스로 지녔던 자의적이며 주체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감자」에서 복녀는 처음 아버지와 남편의 의지에 따라 숙명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도덕적인 타락의 서사에 따라 복녀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서사가 전개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최후에는 그녀의 욕망이 비극을 초래하고 있지만 복녀는 끊임없는 욕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욕망을 채우려는 과정이 돋보인다.

2. 도덕을 지키며, 가부장제에 따르는 숙명적인 복녀

「감자」에서 복녀는 1920년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조선 땅에서 살고있는 대표적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유교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부장제 아래서 숙명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여성의 모습이다.

「감자」의 시작 부분에서 복녀에 대한 서술이다.

“복녀는, 원래 가난은 하나마 정직한 농가에서 규칙있게 자라난 처녀였었다. 이전 선비의 엄한 규율은 농민으로 떨어지자부터 없어졌다하나 그러나 어딘지는 모르지만 탄 농민보다는 좀 똑똑하고 엄한 가솔이 그의 집에 그냥 남아 있었다.”⁴⁾

소설에서 보듯이 처음에 복녀는 빈민굴로 밀리어 와서 굶는 일도 흔히

4) 김동인, 「감자」, 『正統韓國文學大系』, 제2권, 어문각, 1988, p.429.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원래 복녀는 엄한 가울을 받아들여 도덕적 관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열 다섯 살때 복녀의 부친은 그녀를 20년 연상의 사람에게 돈 80원에 시집 보낸다. 복녀의 남편은 극도로 게을러서 복녀는 부지런히 주인집 일을 보았지만 남편의 게으름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1920년대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사회에 있어서 복녀의 삶은 아버지에 의해 선택될 수밖에 없다. 복녀는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무능한 가장인 아버지에 의해 가난이라는 현실문제로 인해 팔려간 것이다. 전통적인 윤리와 가부장제의 부속품으로 사는 복녀는 한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도 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자신을 판 아버지나 무능한 남편에 대해 한 마디 반항의 말조차 던지지 못한 점에서 확인된다. 아직 전통적인 유교관이 그녀 삶을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그녀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 부양책임을 지고 있다. 이때 복녀의 도덕관은 다음의 서술에서 보인다.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 하는 일을 본받아서, 그도 돈벌이 좀 잘하는 사람의 집이라도 간간 찾아가면 매일 오륙십 전은 벌 수가 있었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라난 그는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었다.”⁵⁾

복녀는 굶는 일조차 흔히 있을 정도로 가난하지만 선비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동네 여인들의 보통하는 매음행위를 본받지 않고 오로지 정업에만 전념할 따름이다. 이 단계에서 복녀는 도덕적 기품을 지닌 정상인으로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건전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복녀의 도덕적 기품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복녀는 도덕적으로 기품을 가지고는 있지만 타인의 부속품이 아

5) 김동인, 위의 책, p.430.

나라 한 개인으로서의 자의식은 실제적으로 깨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3. 도덕관에 의심을 품고, 자의식을 가지게 된 복녀

복녀는 송충이 잡는 일을 하면서 우연히 감독과의 불륜관계를 맺고 난 뒤 매춘이야말로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녀의 도덕관은 붕괴하기 시작되고 새로운 도덕관을 갖게 된다. 처음 복녀는 “판 남자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짐승의 하는 짓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 안하고 품삯 많이 받는 인부’가 된 뒤 그녀의 인생관은 급속하게 변모되면서 도리어 재미있어 한다.

그 후부터 복녀는 기존의 익숙했던 도덕관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가치관은 점차 바뀌게 된다.

“그러나 이런 이상한 일이 어디 다시 있을까? 사람인 자기도 그런 일을 한 것을 보면 결코 사람이 못할 일이 아니였었다. 게다가 일안하고 돈 더 받고, 긴장된 유쾌가 있고 빌어먹는 것보다 점잖고…… 일본말로 하자면 삼박자 같은 좋은 일은 이것뿐이었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비결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는 뒤부터 그는 처음으로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까지 얻었다.”⁶⁾

소설에서는 심리묘사를 통해 복녀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복녀의 행동에 대한 묘사도 덧붙인다. ‘그 뒤부터는, 그의 얼굴에

6) 김동인, 위의 책, p.431.

는 조금씩 분도 바르게 되었다.’ ‘복녀의 얼굴은 더욱 이뻐졌다.’ 분장을 하기 시작한 복녀는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았다는 증표이다.

한편 매음 사건은 복녀 집안의 권력 구성을 뒤바꾸었다. 복녀의 남편은 아내의 매음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인하며 방관, 조장하며 ‘이것이 결국 좋은 일이라는 듯이 아랫목에 누워서 얼썩얼썩 웃고 있었다.’ 이 대목에서 보듯이 이제부터 복녀는 가부장제에서부터 벗어나 가정 내에서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매음한 다른 여자보다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자랑스러운 듯이 말하며 자기 남편 앞에 돈을 내놓는다. 이제 복녀는 자신을 꾸미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다져가고 경제 권을 잡음으로 남편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 복녀는 이때부터 전통적인 도덕관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자의식의 싹도 이때부터 움트기 시작한다. 앞에서 언급한 헤겔의 관점에서 보아듯이 사람은 욕구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 자의식은 욕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한 여성으로서의 복녀에게 자기 이름의 성에 대한 욕망이나 감정, 내적 갈등이 없을 리 만무하다.”⁷⁾ 복녀는 한 개 사람이 된 것 같은 자신감과 두렵게 생각되던 일에서 유쾌함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에 대한 순종이 아닌, 복녀가 미처 몰랐던 자기 본능의 욕망과 감정을 깨닫게 된다. 도덕관은 타락하는 반면 복녀의 자의식은 싹트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본능적 욕망을 끝까지 추구함으로써 그녀는 욕망과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자의식도 더욱 성장한다.

7) 한상무, 『김동인 소설의 성 이테올로지』, 『국어교육』, 102호, 2000, p.248.

4.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자기욕망을 채우는 복녀

소설의 후반으로 접어들며 복녀의 매음행위는 빈번하게 등장한다. 마침내 복녀는 거지에게까지 웃음을 팔고, 중국인 왕서방에게 붙들려사는 모습에까지 다다른다. 그 후 왕서방과 관계를 맺고 상습적인 매춘행위를 하게 되면서 그녀의 살림은 ‘이제 이 빈민굴의 한 부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왕서방과 상습적인 매음행위를 계속하면서 복녀는 구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타락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러나 이런 도덕적인 타락과 동시에 복녀의 자의식도 점차 성장되어 간다. 복녀의 왕서방에 대한 감정의 변화는 다음 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복녀는 차차 동네 거지들한테 애교를 파는 것을 중지하였다. 왕서방이 분주하여 못을 때가 있으면 복녀는 스스로 왕서방의 집까지 찾아갈 때도 있었다.”⁸⁾

남편의 전통의미적 권위가 상실됨으로써 복녀는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은 이 부분에서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된다. 뜻밖에 왕서방이 장가를 들어 새 색시를 맞아들이게 되자 복녀의 욕망 추구의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게 된다. 복녀는 욕심과 질투심에 불타올라 결국 비장하게 마무리된다. 이런 비극적인 원인은 왕서방이 복녀에게 가진 감정과, 복녀가 왕서방에게 가진 감정이 서로 다른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왕서방이 장가 든 소식을 들은 후 복녀의 심리적인 묘사와 행위를 서술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8) 김동인, 위의 책, p.433.

……‘내가 강짜를 해? 그는 늘 힘있게 부인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생기는 검은 그림자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

……“자, 우리 집으로 가요.”

왕서방은 아 말도 못하였.눈만정처없이 두룩두룩 향였다.복녀는 다시 한번 왕 서방을 흔들었다.

“자 어서.”

……복녀의 입에 아직껏 떠돌던 이상한 웃음은 문득 없어졌다.⁹⁾

위의 글에서 복녀는 한 여성으로 왕서방에 대한 본능적 점유욕을 그리고 있다. 헤겔에 의하면 욕구의 본질은 욕구하는 대상의 지향을 통해서만 만족된다고 하는 데 있고 사람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욕구하는 대상이 끊임없이 있어야만 한다고 한다. 처음 복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벌어들여 먹는 것보다 점잖은 생활을 위해 매음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복녀는 점점 한 여인으로 자신감을 느끼고 끊임없는 욕망이 생겨났다. 이런 욕망을 추구하려고 왕서방을 욕구하는 대상으로 삼는다. 복녀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거지들에게 웃음을 파는 행동을 그만 둘 필요가 없었고 마음에 검은 그림자가 생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감독, 거지들에게 애교를 파는 일을 중단할 만큼 왕서방과 비교적 안정된 이성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것이다. 소설에서 뻔히 보이듯이 왕서방은 복녀를 사랑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성적 희롱의 상대로 생각하고 그녀의 몸을 돈으로 샀을 뿐이다. 복녀는 왕서방을 애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상대로 굳게 믿고 의지한다. 소설의 결말에서 복녀는 왕서방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냉소를 한다. 이는 그녀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어서 냉소한다기 보다 왕서방이 다른 여성과 결혼한다는

9) 김동인, 위의 책, p.433.

사실을 질투해서 냉소한다고 본다. 이런 질투와 욕망이 바로 복녀의 자의식이 성장해나가는 증표로 본다.

소설의 결말에서 복녀와 왕서방이 서로 끈질기게 치근거리는 과정에서 복녀가 죽게 되는 비극이 발생한다. 죽음을 당하는 순간 복녀의 욕망과 자의식도 같이 파멸된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의 두 가지 서사적 테마—복녀의 도덕적 타락과, 복녀 자의식의 성장은 복녀의 죽음에서 교착점에 이르게 되면서 마무리를 짓는다.

5. 결어

김동인의 「감자」는 1920년대 당시 문단 주류가 된 계몽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색다른 여성상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 복녀는 유교사상의 윤리에 따른 이른바 순종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에 따라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면서 사는 여성 이미지였다. 비록 소설에서는 복녀가 오살을 당해 죽은 것으로 끝을 맺지만 복녀가 자기 감정에 직면하여 삶의 보람을 찾아내면서 자기 주체성을 얻는 데에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 작품을 불리한 환경으로 특징 지워지는 세계 앞에서 자아가 무력하다는 것을 냉혹하게 묘사하여 사실주의가 아닌 자연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규정했는데, 사실 복녀는 환경에 따라 타락하는 이면에는 무조건 남을 따라 한 것이 아니었다. 자기의 몸을 가꾸는 것, 매음 대상을 가리는 것, 칼을 들고 왕서방 신흔방에 들어가는 일련의 행동들은 모두 복녀의 야심과 인생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소설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늘상 자연주의에 초점을 맞춰 계몽주의 소설과 구분시켰다. 그렇지만 이 소설이 계몽주의 소설과 가장 크게 차이를

두는 것은 바로 1920년대 조선 여성의 자의식의 대두에 있다. 그것은 서구 문명의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에 따라, 혹은 진부한 유교 이념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에 대두된다는 것이다.

「감자」에서 복녀의 타락적인 서사는 전경이 되고 여주인공의 비극만 봤을 때 유교 윤리에 대한 작가의 입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락적인 서사와 병행되는 자의식의 성장 서사를 주목하자면 복녀의 죽음은 꼭 비극이라고 할 수 없다. 가령 복녀가 끝까지 가부장제의 지배를 받아 순종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감자」에서 후경에 해당되는 자의식 성장 서사는 실은 전통적 유교이념에 대한 작가의 풍자적, 반박적 입장을 보여준다. 「감자」의 의미는 바로 이 전경과 후경의 교착에서 읽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参考文献

- (1) 김동인, 「감자」, 『正統韓國文學大系』 제2권, 어문각, 1988.
- (2) 김수업, 『배달문학의 길잡이』, 금화출판사, 1978, p.254.
- (3) 윤홍노, 『한국 근대 소설 연구』, 일조각, 1980.
- (4) 이재선, 『한국소설사』, 민음사, 2000.
- (5) 이주형, 「‘소낙비’와 ‘감자’의 거리」, 국어국문학회편, 『현대소설연구』, 정음사, 1982.
- (6) 용석인, 「韓·日자연주의 소설 비교 연구: 자연주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7) 신창순, 「한·중 소설의 여성형상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8) 김주란, 「김동인의 초기 단편 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9) 황현정, 「김동인 소설의 여성인물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10) 황수진, 「김동인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유형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11) 김대식, 「헤겔에 있어서의 자기의식의 자유」,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12) 한상무, 「김동인 소설의 성 이데올로기」, 『국어교육』 102호, 2000.
- (13) 郭颖超, 「妥协于绝望现实的自我意识破灭」, 外国文学研究, 2009.
- (14) 张文秀, 邢青青, 「金东仁小说‘土豆’的女性主义解读」, 青春岁月, 2012.